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20호【루계 제2436호】

주체106
(2017)년 5월
13일
토요일
음력 4월 18일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영예군인들이 모두 건강한가, 애로되는것은 없는가를 다정히 물어주시면서 군사복무의 나날에 발휘한 불타는 애국심을 안고 오늘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새로운 전투초소를 믿음직하게 지켜가고있는 영예군인들을 고무격려해주려고 찾아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변의 풍치와 어울리게 특색있게 일떠선 생산건물들과 보조건물들, 수종이 좋은 나무들로 둘러싸인 산뜻한 구내를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겉볼안이라고 주변환경만 보고서도 영예군인들이 지니고있는 뜨거운 공장애를 잘 알수 있다고 하시면서 혁명적군인정신이 차넘치는 공장이라고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전경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혁명사적교양실,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가 열린 해인 1970년 10월 탁상선반과 볼반을 비롯한 몇대의 설비를 차려놓고 간단한 철제일용품을 생산하는 자그마한 단위로 창립된 공장이 오늘은 3중3대혁명붉은기공장의 영예를 떨치며 온 나라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와 배려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생애의 마지막시기인 2011년 10월 몸소 공장을 찾으시여 제품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수록한 사진문헌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시면서 그때 우리 장군님의 신상은 말할수없이 불편하시였지만 인민들에게 안겨줄 질좋은 수지제품들을 만들고있는 영예군인들이 대견하시여 그리도 기뻐하시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공정관리체계, 품질관리체계, 전력관리체계, 업무관리체계로 이루어진 통합조종체계를 높은 수준에서 구축해놓은 결과 일군들이 생산현장실태에 대한 실시간적이며 직관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과학적인 결심을 채택함으로써 제품의 질을 제고하고 경영활동에서 최대한의 리익을 얻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천필처럼 끝없이 흐르는 비닐필들과 갖가지 문양고운 다양한 형태의 도안들이 찍혀진 여러가지 식료품포장재들이 쉬임없이 흘러나오는 모습이 정말 볼만 하다고 하시면서 팽창압출기, 열봉합절단기, 인쇄기, 합부기를 비롯한 설비들에 대한 운영과 관리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킴으로써 포장재의 질을 높이고있다고, 인쇄의 질이 흠잡을데가 없다고 하시였다.

수지판성형기, 수지고뿌성형기, 대형사출기, 자동중공성형기, 관성형기, 관접합기들에 만부하를 걸어 1회용수지밥곽과 고뿌, 운반용기, 수지관을 비롯한 수지용품들을 팡팡 생산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안의 모든 작업장마다에서 생산증산의 동음이 세차게 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며 가지수가 많을뿐만아니라 쓸모있게 잘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공장제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가 높다고, 특히 우리 인민의 기호에 맞으면서도 식료품들의 질과 문화위생성을 담보할수 있는 포장재들을 손색없이 만들어 평양시를 비롯한 각 도의 식료공장들에 보내주고있는데 대단하다고, 영예군인들이 일하는 본때가 다르다고 하시였다.

정결한 작업장마다에 주런이 늘어선 현대적인 설비들이 이미 있던 설비들을 개조한것이며 그가운데는 수십년간 사용한것도 있다는데 새 설비와 함께 낡은 설비도 첨단과학기술을 도입하여 새것처럼 만들어 생산에 참가시키고있는것이 무엇보다 마음에 든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공장의 모든 기대들을 자기의 무기, 전투기술기재처럼 귀중히 여기고 애호관리하고있는 영예군인들의 애국심이 낳은 결실이라고 하시면서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은 설비관리에서 본보기, 모범공장이라고, 온 나라에 널리 소개선전하고 따라배우게 하라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꾸린 편의봉사시설과 과학기술보급실을 돌아보시였다.

대중목욕탕, 리발실, 운동치료회복실 등으로 이루어진 편의봉사시설의 설계와 시공을 잘했으며 마음먹고 꾸린것이 알린다고 하시면서 공장종업원들이 정말 좋아하겠다고 기뻐하시였다.

나라의 보배인 영예군인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것이 없으며 건강한 몸으로 자기앞에 맡겨진 일을 잘하도록 그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당조직들에서는 영예군인들이 사소한 애로와 불편이 있을세라 세심히 보살펴주는것을 의무와 본분으로 여겨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과학기술보급실도 훌륭히 꾸렸다고 하시면서 운영을 실속있게 잘하여 종업원들속에서 현대과학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사업을 정상화, 생활화하여 그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을 돌아보니 영예군인들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야 한다는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병사시절처럼 조국과 인민을 위한 투쟁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고있다는것을 다시금 잘 알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앞으로도 불타는 애국심과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당정책결사관철의 기수, 돌격대의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자 주 로 강 한 나 라

령도자와 인민이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고있는 공화국에서 자주는 억척불변의 궤도이다.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리익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는 자주는 국력을 강화하고 인민의 존엄을 떨치는 근본담보이다.

자주는 정의이다. 나라와 민족의 존재와 발전, 번영은 자주적인 신념과 독자적인 주견을 가지고 민족자체의 힘에 의하여 이룩하여야 한다는것은 력사의 진리이다. 공화국이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집요하고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한걸음의 양보나 한치의 드팀도 없이 부국강병을 이룩하고있는것은 절대의 진리인 자주적대를 확고히 견지하고있는데도 기인한다. 반공화국 적대세력의 무모한 군사적압살책동도, 전대미문의 《초강도제재》도 공화국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하고있다.

국가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의 지향과 의사, 나라의 실정과 리익에 맞게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심하고 현실에 구현하는것이 공화국의 시종일관하고 확고부동한 자주의 원칙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국가건설의 전기간 언제나 인민의 요구, 국가적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로선과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시였으며 국가와 인민자신이 책임지고 자기 힘으로 풀어나가는 자주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도록 하시였다.

남의 지배를 받는 민족은 어떤 경우에도 굴욕적인 운명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자기의 자주적발전을 기대할수 없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우리는 그 누가 압력을 가한다고 하여 해야 할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것을 하는것과 같은 일은 절대로 없을것이라고 확언하시고 창조와 건설에서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우시였다. 세계에서 큰 당과 작은 당, 큰 나라와 작은 나라, 경제적으로 발전된 민족과 뒤떨어진 민족은 있을수 있지만 높은 당과 낮은 당, 지시하고 명령하는 나라와 복종하는 나라가 따로 있을수 없으며 모든 당, 모든 나라와 민족은 다 평등하고 자주적이라는것이 주석님께서 확고하게 견지하신 자주의 립장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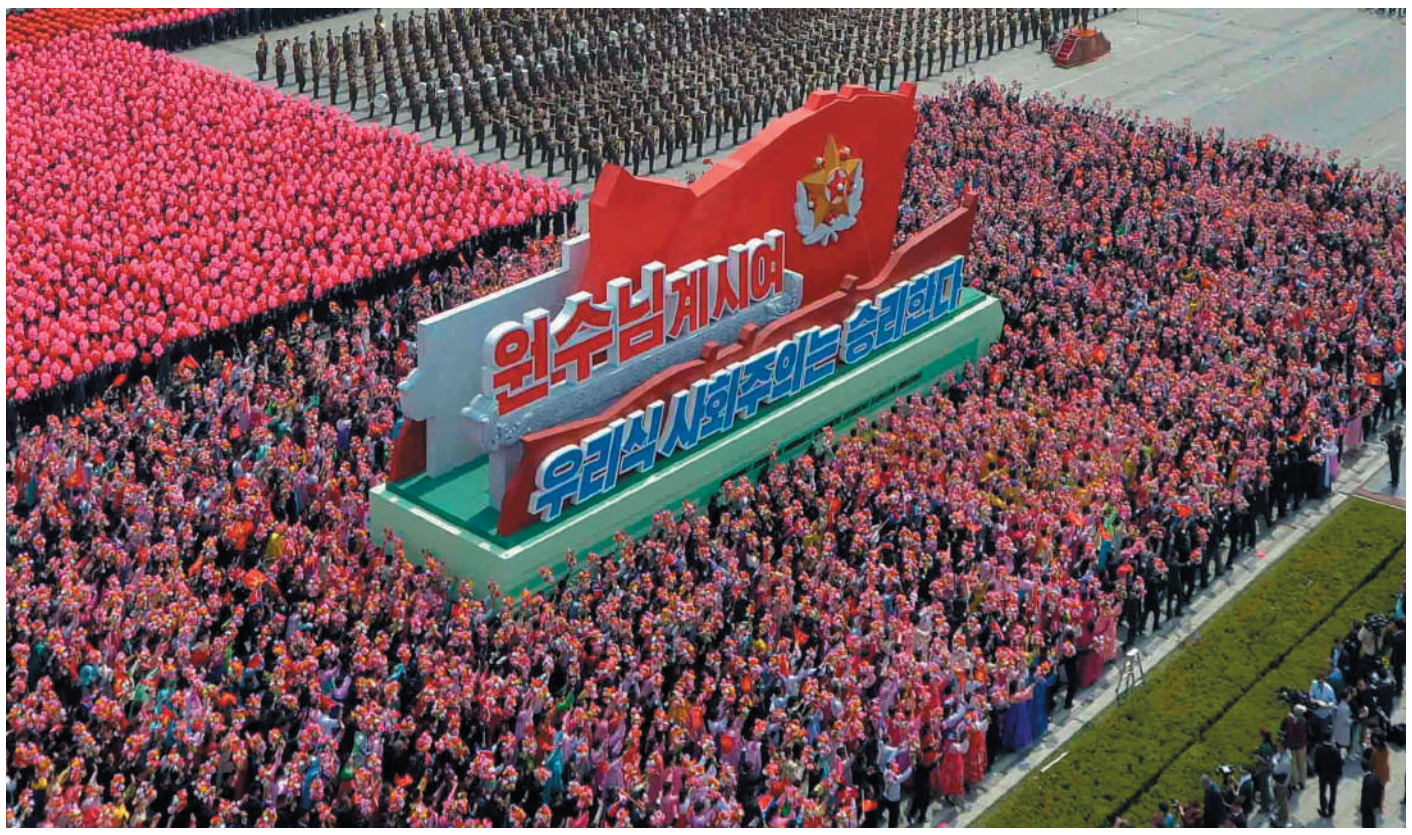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자신의 한생을 돌이켜보시며 나는 한평생 민족의 존엄을 위하여 싸워왔다, 나의 일생은 민족의 존엄과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력사였다고 말할수 있다고 감회깊이 추억하시였다.

그 누가 우리 민족을 해치거나 공화국의 자주권을 건드리는데 대하여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으신 주석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치적자주성은 자주독립국가의 첫째가는 징표이며 제일생명이라고 하시였다. 주체의 기치높이 기성리론이나 기존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모든것을 자주적립장에서 대하시며 창조와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나라의 실정과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해결하는것은 장군님께서 지니신 확고부동한 원칙이였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라, 우리 식대로 투쟁하라, 우리 식대로 창조하라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에는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원칙과 창조적립장을 확고히 고수하고 구현하여오신 철의 신념과 불굴의 의지가 담겨져있다.

그이께서 펴신 선군정치는 자위의 총대로 민족자주를 담보하는 강위력한 자주정치이다. 제국주의세력의 강권과 전횡이 란무하는 세계에서 자주성을 견지하고 국권을 고수하자면 힘이 있어야 한다. 강한 힘인 군력에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독자적인 주견과 결심도 생기고 그 어떤 압력이나 제재에도 굴하지 않는 배짱과 결단도 나온다. 총대이자 국권이고 선군이자 자주인것이다. 지난 세기 90년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이 전례없이 끈질기고 악랄한 환경속에서 우리 인민이 전대미문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과 같은 험로역경을 돌파하고 강국건설의 포성을 높이 울리게 된것은 장군님의 애국의 자주정치, 탁월한 선군령도가 있었기때문이였다.



오늘 공화국은 자주적대가 굳세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최고령도자로 모시여 자주강국의 불패의 위용을 더욱 높이 떨쳐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년전 위대한 주석님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에서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펼쳐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 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갈 공화국의 립장과 의지를 명백히 천명하시였다.

자주정치의 거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은 그 어떤 강적도, 그 어느 대국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최강의 전쟁억제력을 가진 동방의 핵강국으로, 자기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우주를 정복하는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의 지위에 당당히 오르게 되였다. 적대세력들의 모진 제재와 압박을 박차며 조선의 인공지구위성이 우주로 치솟고 자위의 핵뢰성이 행성을 련이어 뒤흔든 최근년간의 충격적인 사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주적결심과 담력과 배짱의 시위였다.

자주와 존엄을 생명으로 여기는 자주강국인 공화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모진 광풍이 불어닥친다 해도 자위의 억제력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것이며 날로 무모해지는 미국의 핵위협, 압살공세에 대처하여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가게 될것이다.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루고 무한대한 자강의 힘이 있으며 자위의 든든한 억제력이 있어 공화국은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에서 최후승리의 기발을 기어이 휘날리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 설

건축에서의 절대적기준

이 땅우에 일떠서는 모든 건축물들은 형식과 규모, 용도는 각이하여도 하나로 관통되는 기준이 있다.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 편의가 최우선시되여야 하며 인민들의 정서와 미감에 맞게 사상예술성과 실용성이 완벽하게 보장되여야 한다는것이다.

건설의 대번영기를 열어나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건축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건축의 창조자도 인민대중이고 그 향유자도 인민대중인것만큼 건설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도록 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에는 건설에서 주체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민족성과 현대성을 옳게 결합시키며 세계적수준을 릉가하고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없는 기념비적건축물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일떠세우도록 하시려는 숭고한 의도가 담겨져있다.

몇해전 6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릉라곱등어관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곱등어관의 내부를 구체적으로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파도가 밀려오는 바다풍경을 형상한 무대벽면을 유심히 살펴보시였다. 실지 파도가 치는것 같고 바위에 부딪친 파도가 극장바닥으로 흘러내리는것만 같은 바다풍경은 볼수록 실감있었다. 바위장식도 배경그림과 자연스럽게 련결하였다고, 배경그림을 보니 실지 바다가를 보는것 같다고 하시며 바다풍경을 그린 무대반경화에서 줄곧 시선을 떼지 못하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설계부문의 한 일군에게 저 무대가 국제기준에 부합되는가고 물으시였다.

국제적기준에 부합된다는 그의 말을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는 반대이라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공연무대바닥에 다른 나라들에서처럼 청색을 칠하였는데 무대배경을 바다기슭으로 형상하였기때문에 무대바닥을 모래가 파도에 밀려나온것처럼 모래와 같은 색갈로 처리하면 조화가 더 잘될수 있다. 세계적으로 곱등어관무대를 청색으로 한다고 하여 우리도 꼭 그렇게 하여야 한다는 법은 없다. 곱등어관무대를 국제적기준에 맞추어 청색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나 하여도 우리의 미학적감정에 맞게 우리 식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확신에 넘치신 어조로 우리 인민의 미학적감정에 맞게 하는것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라고 하시였다. 아무리 훌륭한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배치될 때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것, 인민들이 좋아하고 인민들에게 편리하게 되면 그것이 다름아닌 우리의 기준이라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였다.

건축물에는 그것을 떠받드는 든든한 기초와 지반이 있다면 그 밑에는 해당 시대를 특징짓는 정치철학이 놓여있다. 인류의 건축력사에 세계의 기적으로, 인간의 창조적능력의 대표적기념비로 전해져오는 건축물들이 많다. 피라미드나 고대광실 같은 궁전들의 웅장화려함과 신비한 건축술은 비록 근로하는 인민의 지혜와 땀으로 이루어진것이기는 하지만 당대 지배세력의 무제한한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대표작으로 전해져올뿐이다. 인민은 어느때나 건설의 주인공이였지만 그 건축물의 소유자는 소수 지배자들이였다. 그러나 공화국은 이 땅에 건국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인민의 복리와 문명을 위하여, 인민의 편의와 향유를 위하여 건설을 설계하고 완공의 테프를 끊어왔다.

희한한 걸작품으로 건설된 평양중등학원의 주인들이 부모없는 아이들이며 나라의 최고령도자가 개교에 앞서 학원을 제일먼저 찾으신 사실은 사람들에게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의 참의미를 다시금 가슴깊이 새겨주었었다. 세상에는 화려하고 요란한 건축물을 일떠세우고 호화로운 향락추구를 가치관으로 삼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돈벌이가 목적이기에 웬만한 사람들은 눈길조차 돌리지 않고있다. 그런 건축물들과 부모잃은 아이들을 위한 학원이여서 국가적인 시책과 사회적인 관심속에 있는 창조물사이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것인가.

이 땅우에 즐비하게 펼쳐지는 건축물들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모든것의 절대적기준으로 여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이 낳은 고귀한 결정체들인것이다.

김성숙

만민을 매혹시키는 출중한 위인적 풍모

외국의 벗들 열렬히 칭송

특출한 정치실력과 령도풍모로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목소리가 외국의 벗들속에서 끊없이 울려나오고있다.

로씨야련방공산당 연해변강위원회 제1비서 아나똘리 돌가체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정치와 군사 등 모든 분야에 정통하신 회세의 위인이신 김정은동지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다.

진보적인류는 세계의 평화와 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는 그이를 가장 걸출한 정치가로 열렬히 칭송하고있다.

김정은동지의 뛰여난 자질과 출중한 풍모는 만민을 매혹시키고있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조선은 강위력한 사회주의나라로 위용 떨치며 확신성있게 전진할것이다.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공동리사장 죠니 혼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으로 하여 조선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많은 애로와 난관을 겪고있다.

그러나 무비의 기상과 담력을 지니신 불세출의 선군령장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이 모든것을 과감히 뚫고나가며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부강조국을 건설하고있다.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정의의 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만이 있을것이다.

조선과의 친선협회 위원장 알레한드로 까오데 베노스는 김정은각하는 뛰여난 정치실력과 고매한 덕망을 지니신 위인중의 위인이시라고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김정은각하께서는 백두산위인들의 비범한 예지와 독창적인 령도력, 뜨거운 인정미를 그대로 체현하고계신다.

특별히 매혹된것은 인민에 대한 그이의 열렬한 사랑, 인민을 위하시는 그이의 숭고한 풍모이다.

김정은각하와 같으신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는 동서고금 그 어디에도 없다.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는 조선인민이 정말 부럽다.

본사기자

다시 찾아야 할 6.15 (4)

화해와 협력의 북남관계

북남관계는 하나의 피줄을 이은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이며 함께 통일로 가야 할 동족사이의 관계이다.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두개 민족이 대치되여있는것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이 한 조국강토 안에서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갈라져있다.

통일은 이러한 북과 남이 하나가 되는 일이다. 마음도 합치고 힘과 지혜와 경험도 합쳐서 이루어지는것이 통일이다. 북과 남이 만나지 않고 교류와 협력을 하지 않고 통일이 이루어질수 없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이야말로 통일을 위해 필수불가결한것이며 그 자체가 통일에로 가는 과정이다.

6.15시대가 이것을 실천으로 웅변하였다. 6.15공동선언이 밝힌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반세기이상 지속되여온 불신과 대결의 력사를 화해와 협력의 새 력사로 바꾸었다.

6.15가 열어준 하늘길, 바다길, 땅길을 따라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대하가 도도히 굽이쳤다. 북과 남을 오가며 계층별 통일대화와 체육, 문화, 과학,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의 공동행사와 협력사업들이 활발히 벌어졌다.

분렬사상 처음으로 남조선의 언론사대표단이 대규모로 평양을 방문하는가 하면 남조선에서 진행된 여러 국제경기대회들에 북의 대규모의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하여 《통일대지진》을 일으켰다. 특히 2002년 부산에서 진행된 제14차 아시아경기대회와 2003년 제주도에서 진행된 북남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때에는 백두산과 한나산에서 채화된 성화가 하나로 합쳐져 부산과 제주도의 경기장봉화대에 통일의 횃불로 타올라 만사람을 감동시켰다. 북과 남의 각계층은 평양과 서울, 금강산 등지에서 토론회와 공동자료전시회 및 사진전시회 등을 열고 우리 민족은 피줄과 언어, 력사와 문화도 하나이며 갈라져 살수 없는 단일민족임을 내외에 과시하였다. 분렬의 한을 씻으며 북과 남의 수많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도 서로 만나 뜨거운 혈육의 정을 나누었다.

어디 이뿐인가. 북과 남사이에는 오래동안 굳게 닫겨있던 분렬의 장벽을 뚫고 민족의 혈맥과 지맥을 하나로 이으며 통일대통로가 장쾌하게 뻗어나가는 극적인 사변도 일어났다. 2003년 10월 유서깊은 평양의 보통강기슭에 류경정주영체육관이 6.15의 풍경으로 일떠섰는가 하면 2005년에는 남녘의 동포들이 평양에서 성대히 개최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관람하기 위해 수천명이나 북을 다녀갔고 남조선의 한 녀성이 평양산원에서 통일옥동녀를 낳은 기쁜 소식도 전해졌다. 공화국의 동포애적인 조치로 이루어진 금강산관광사업이 나날이 확대되여 근 200만에 달하는 남녘의 동포들이 민족의 명산을 보고싶은 자기들의 소원을 풀고 통일의 지를 더욱 가다듬었다. 개성공업지구에서는 북남경제협력의 동음이 힘차게 울려퍼지고 지난 시기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군사분계선 륙로통행도 진행되였다.

참으로 6.15통일시대에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은 크게 전진하였으며 이 땅에서는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거대한 전변의 력사와 기적적인 현실들이 펼쳐졌다.

그러나 남조선에서 6.15를 부정하며 련이어 등장한 친미보수《정권》들의 동족대결소동으로 북과 남사이의 화해와 협력사업은 모두 날아났다. 우리 민족을 그토록 통일의 환희로 끓게 했던 북남사이의 래왕과 협력사업은 옛이야기로 되고 지금 북남사이에 흐르는것은 험악한 대결과 적대의 기류이다.

지난 시기에는 북남사이의 래왕과 협력이 일상적인 일로 되였다면 친미보수《정권》집권이후 남조선에서는 북과 남의 화해와 협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친북》, 《좌파》, 《종북》, 《빨갱이》로 몰려 가차없이 탄압당하였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업지구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힘있게 추동하여온 북남화해협력의 상징, 6.15의 옥동자였다.

그 무슨 《퍼주기》와 《돈줄》을 운운하며 리명박《정권》이 금강산관광사업에 갖은 장애와 난관을 조성하다 못해 관광객사건을 구실로 10년동안 이어져오던 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면 박근혜역적패당은 《북남관계의 마지막보루》로 그나마 겨우 유지되여오던 개성공업지구를 전면폐쇄함으로써 북남관계의 마지막숨줄마저 끊어놓았다.

이로 해서 남녘동포들의 금강산에로의 탐승길이 10년 가까이 가로막히고 북남관계는 주추돌 하나 남은것 없이 완전 폐허로 된것은 말할것도 없고 북남협력사업에 종사하던 남조선의 련관 기업들은 천문학적 액수의 피해를 입고있다. 특히 박근혜역적패당의 개성공업지구 폐쇄망동으로 124개의 남조선입주기업을 포함한 6 000여개의 기업들이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였으며 12만 4 000여명의 로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전락되였다. 자료에 의하면 북남사이의 협력사업중단으로 남조선에서는 근 3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남조선돈으로 5조 9 720억여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여 중소기업들과 인민들의 생계가 큰 타격을 받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의 한 언론은 《남북관계경색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직접적으로만 55억 5 000만US$, 간접피해까지 포함하면 149억 3 400만US$에 달한다.》고 전하였다.

이전 반통일보수《정권》들의 북남협력사업파괴죄악에 대해 남조선의 각계층이 《대북제재가 아니라 대남제재》, 《북에 하나를 주지 않으려고 수백을 손해보는 머저리짓》이라고 강력히 비난, 성토하였던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하고 감옥으로 끌려간것은 파쑈독재와 반인민적악정, 부정부패를 일삼고 북남관계를 이 세상 어디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적대적인 관계로 만든 천하의 동족대결악녀에게 내린 력사와 민심의 준엄한 징벌이다.

현실은 민족의 통일지향에 역행하여 북남관계의 파국을 몰아오고 동족대결에 혈안이 된자들에게 차례질것은 비참한 종말뿐이라는것을 똑똑히 깨우쳐주고있다.

본사기자 최 광 혁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요구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원회)가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6.15남측위원회는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기도, 경상남도, 서울, 울산, 광주에서 각각 1만명, 1 000명선언운동 등을 전개하였으며 《녀성 3 000인평화선언》을 발표하였다.

6.15남측위원회는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악폐청산중 제일 중요한것이 민족분렬이라고 주장하였다.

화해와 평화의 기운이 되살아나야 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우선 개성공업지구가동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미군철수문제를 론의해야 한다고 하면서 남과 북이 통일을 위한 화해와 협력시대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그들은 밝혔다.

하루빨리 남북의 대결상태를 끝장내고 미국의 조종으로부터 벗어나 평화적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이어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다.

회견문은 다음 《정부》는 구태의연한 색갈론, 갈등과 긴장을 부추기는 대결정책, 주권을 훼손하는 모든 외교정책을 청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부》가 《싸드》 배치전면재검토, 남북사이의 합의계승과 그 리행립장선언, 평화협상개시, 평화협정체결, 남북대화재개, 남북협력사업전면적복원, 민간교류 등의 과제를 리행해야 한다고 회견문은 제시하였다.

회견문은 당국이 모든 남북대화를 독점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다가오는 6.15, 8.15민족공동행사를 비롯하여 각계교류를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보장하는것은 물론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성사에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정부》가 대화와 협력으로 평화를 선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초불민심에 대한 배신외에 다름이 아니라고 회견문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민족자주는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

력사적인 7.4공동성명발표 마흔다섯돐과 10.4선언발표 열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면 민족자주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

민족자주는 민족문제해결의 핵이며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이다.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이며 자주성을 지키는것은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근본담보이다.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민족의 운명을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할수 있다. 자주성에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있고 긍지와 자부심도 있다. 자주적립장을 견지하지 않고서는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지킬수 없고 나라와 민족의 번영도 이룩해나갈수 없다.

외세에 빼앗긴 민족의 자주권을 도로 찾는 조국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것은 예속의 올가미를 스스로 목에 거는것이나 다름없는 어리석은짓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이 장장 70년이 넘도록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것자체가 외세의 끈질긴 간섭과 방해책동에 기인된다. 동서고금의 력사는 나라와 민족이 외세의 힘을 빌어 자기 민족문제를 옳바로 해결한 실례를 알지 못한다. 오히려 외세에게는 다른 나라의 민족내부문제에 개입하여 저들의 리익을 실현하고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흉심이 있을뿐이다. 오늘 세계를 둘러보면 자주적립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제국주의세력에게 눌리워 모든것을 양보한탓에 여러 나라들에서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 리익이 무참히 유린당하는 처참한 사태가 빚어지고있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여 실현하여야 할 민족자주위업이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실질적인 힘도 우리 민족자신에게 있다. 그런것만큼 우리 민족은 자주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조국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이룩해나가야 한다.

조선을 둘로 갈라놓은 외세가 결코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선사해줄수 없다. 우리 나라의 통일을 달가와하지 않고 전쟁을 몰아오려는 외세는 오히려 조선의 분렬을 통하여 어부지리를 얻으려 하고있다.

자주적운명개척의 힘은 민족의 단결된 힘에 있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겨레의 투쟁도 결국은 민족의 대단결을 위한 투쟁이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떠나서 민족의 단결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전민족대단결을 이룩할 때에만 우리 민족이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있고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위대한 추동력으로, 결정적력량으로 될수 있다.

현시기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미국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남조선보수패당과 야합하여 대규모의 북침전쟁연습소동으로 조선반도의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고있다.

그런가하면 사대와 외세의존을 체질화한 남조선의 보수패당은 민족공조가 아니라 외세우선, 외세공조를 떠들며 동족대결책동에 더욱 광분하고있다.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자랑찬 한페지를 장식한 6.15통일시대를 가로막고 북남관계를 사상최악의 파국상태에로 몰아넣은 리명박, 박근혜역적패당의 죄악에 찬 행적을 돌이켜보아도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책동이 우리 겨레에게 얼마나 큰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는가를 잘 알수 있다.

동족에 대한 극단적인 적대관념이 골수에 짝 들어차있는 이자들은 대결일변도적인 《비핵, 개방, 3 000》과 《신뢰프로세스》라는것을 《대북정책》으로 공식화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공화국의 존엄높은 사회주의제도를 해치고 《체제통일》을 이루어보려고 미친듯이 발광하였다. 《비핵, 개방, 3 000》과 《신뢰프로세스》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완전히 배치되는 외세추종론, 동족대결론, 북침전쟁론이였다. 동족을 대화와 협력의 상대, 통일의 동반자가 아니라 《적》으로 간주하는 역적패당들의 《대북정책》이 북남관계를 파괴하고 전쟁위험을 증대시킬수밖에 없었다는것을 지나온 나날들과 지금의 엄혹한 정세가 잘 말해주고있다.

현시기 북남관계는 단 한점의 사소한 불꽃도 무시무시한 열핵전쟁으로 번져질수 있는 최극단상태에 놓여있다.

종개 한마리가 온 강물을 흐린다고 대결과 전쟁에 환장한 남조선의 보수패당때문에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는 줄곧 최악의 위기국면에서 헤여나지 못하였다. 남조선인민투쟁사에 뚜렷한 자욱을 새긴 초불항쟁은 파쑈독재와 반인민적정책,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을 일삼아온 보수당국에 대한 쌓이고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였다.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 반《정부》투쟁에 의하여 박근혜와 그 패당이 력사의 준엄한 심판대우에 올라서있지만 아직도 친미보수세력은 저들의 죄악을 반성할 대신 침략적인 외세에 아부굴종하여 조선반도정세를 전쟁국면에로 몰아가려 하고있다.

날로 로골화되는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은 민족자주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한 온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만 짓부셔버릴수 있다.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힘을 합쳐나간다면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으며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앞에서는 내외반통일세력들의 그 어떤 책동도 맥을 추지 못할것이다.

해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사대와 외세의존을 철저히 배격하고 외세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함으로써 자주통일의 그날을 반드시 앞당겨와야 할것이다.

김 규 혁

구름이 손에 잡힐듯

얼마전 취재차로 최상의 문명이 응축된 리상거리, 현대건축거리의 본보기로 훌륭히 일떠선 려명거리에 들어선 우리는 한동안 망설였다. 이 드넓은 거리의 어디부터 취재할것인가? 그런 우리의 눈앞에 아아하게 치솟은 70층 초고층살림집이 시야에 비껴왔다. 순간 저 초고층살림집이 려명거리의 상징이고 그 맨 꼭대기층에 과연 누가 살고있을가 하는 호기심이 우리의 발걸음을 그리로 옮기게 했다.

고속승강기는 우리들을 싣고 눈깜빡할사이에 70층으로 날아올랐다. 복도에 들어서 맞은켠 집의 초인종을 누르니 60대초반의 녀인이 우리를 반겨 맞아주었다.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사로 일한다는 윤원철의 어머니 김금선이라고 소개하는 그의 손에 이끌려 우리는 보고싶던 집안에 들어섰다.

산뜻한 색타일로 곱게 장식된 부엌이며 넓다란 공동살림방, 자식방, 부부방, 로인방들에 침대, 쏘파, 식탁, 책장 등 고급가구들이 갖추어진데다가 태양빛으로 조명과 가정용전기제품을 사용하고 지열난방체계까지 갖추어져있어 그야말로 부러운것이 없을상 싶었다.

김금선녀인은 《이전에도 국가에서 준 살림집에서 불편을 모르고 살았는데 이번에 평범한 연구사인 우리 아들에게 이처럼 크고 덩실한 집을 배정해주지 않았겠소. 이사와보니 이건 집이라기보다 꼭 궁궐한가지라오. 우리 아들은 더 큰 연구성과로 하늘같은 나라의 은덕에 보답하겠다며 요즘 연구소에서 살다싶이 한다오.》라며 눈물이 글썽하여 말하였다.

베란다에 나가 창문을 열고 70층에서 바라본 평양의 전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였다. 가까이에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른 고층, 묶음식살림집들이 보이고 멀리로는 주체사상탑, 5월1일경기장, 류경호텔, 릉라인민유원지, 과학기술전당 등이 안겨왔다. 요즘 경비행기를 타고 평양시가지를 내려다보는 관광이 인기를 끌고있는데 마치도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으는 심정이였다. 금시라도 손을 뻗치면 두둥실 떠가는 목화솜같은 흰구름이 손에 잡힐것만 같았다.

황홀한 심경에 잠겨있는 우리에게 김금선녀인은 며칠전에 외국인들이 자기 집을 찾아 집안도 돌아보고 평양의 아름다운 풍치도 부감하면서 자기들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해주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돈없는 사람은 이런 궁궐같은 집에서 살 엄두도 내지 못한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평범한 젊은 연구사에게 무상으로 이런 좋은 집을 안겨주었다니 이런 전설같은 이야기는 난생처음 들어본다, 서방세계에서는 꿈조차 꿀수 없는 행복의 상상봉, 문명의 최절정에 올라선 조선사람들이 정말 부럽다고 말하였다는것이였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평범한 교원, 연구사들이 안겨사는 이 70층 초고층살림집들이 공화국인민들이 올라선 행복의 상상봉을 련상케 했다.

시간이 흘러 서쪽하늘가에 저녁노을이 붉게 물들었다. 노을진 하늘을 배경으로 하는 려명거리의 모습은 더욱 황홀하였다. 아침해 솟을 때 70층에서 바라보는 그 광경은 더욱 장쾌하리라. 우리는 집주인에게 해돋이풍경을 보러 후에 다시 찾아오겠다고 웃으며 말하며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였다.

본사기자 김철호

황홀한 새 거리에 넘치는 인민의 기쁨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지구에 현대건축거리의 본보기, 표준으로, 사회주의선경으로 훌륭히 일떠선 려명거리.

이깔나무와 봇나무가 설레이는 백두의 수림속마냥 록색과 흰색타일로 보기 좋게 장식되고 초고층, 고층, 다층 살림집들이 숲을 이룬 려명거리 그 어디서나 인민의 기쁨이 차넘치고있다.

우리가 맨먼저 찾은 곳은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이 입사한 려명거리 70층 초고층아빠트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7층 3호에서 살고있는 박사, 부교수 마성수교원은 려명거리에서 살게 될 인민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눈에 선히 떠오른다고, 우리 인민들과 또 하나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에 기분이 정말 좋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어려와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다고 격정에 겨워 말하였다.

이어 우리는 고속승강기에 몸을 싣고 47층 4호에 살고있는 **김일성**종합대학 부교수 석사 우영남연구사의 집을 찾았다. 그의 안해도 **김일성**종합대학 졸업생이고 아들도 역시 같은 대학의 학생이였다. 반갑게 맞아주는 집주인의 안내를 받으며 방안에 들어선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희한한 전경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넓다란 공동살림방과 자식방, 부부방, 부엌, 창고, 복도… 그야말로 고대광실을 방불케 했다.

그뿐이 아니였다. 고급벽지에 문양고운 바닥레자며 쏘파와 책상, 의자, 장식장, 식탁과 같은 고급가구들과 찬장이며 가시대, 가스곤로까지 갖추어져있었다. 《이렇게 훌륭한 새 집에 들어서니 이 세상 복이란 복은 내가 다 받아안은것만 같습니다. 원수님의 하늘같은 은정에 무슨 말로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영남연구사가 감격에 겨워 하는 말이였다. 그의 안해도 이사하는 날 인민군 군관이 집열쇠를 손에 쥐여주며 새 집에서 행복하게 살기 바란다고 말할 때 눈물이 났다고, 우리에게 이런 꿈같은 행복을 안겨주시려 우리 원수님 지새우신 그 많은 낮과 밤이 생각난다며 눈굽을 적시였다.

이것이 어찌 이들부부만의 심정이랴. 오늘의 이 경사는 과학자들의 존엄이 돈에 의해 롱락되는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것이라고 하면서 살림집리용허가증을 받은 그날 온 가족이 온 밤 뜬눈으로 새웠다는 교수, 박사 박렬연구사도, 자본주의사회같으면 일생을 일해 번 돈으로도 사지 못할 이런 주택을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받은데 대해 친척, 친우들이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축하를 해주고있다고 긍지에 넘쳐 말하는 평양식료일용기술대학 교원 박송남과 그의 안해 리영혜의 심정도 다를바 없었다. 정말이지 어디 가나 누구를 만나보나 행복에 넘친 목소리들이였고 그 사랑, 그 은정에 보답할 맹세의 마음들이였다.

시간은 흘러 려명거리에 어둠이 깃들었다. 하지만 불야경을 이룬 려명거리는 마치 밤을 모르는듯 하였다. 우리에게는 집집의 창가마다에서 흘러나오는 그 하나하나의 불빛이 그대로 행복의 웃음처럼 느껴졌다.

본사기자 박철남

단 상

평양의 《1만2천봉우리》

요즘 사람들속에서 화제는 려명거리이다.

지금까지 건설된 살림집들중에서 제일 높은 70층초고층살림집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람들속에서 《로케트아빠트》, 《인공지구위성아빠트》로 불리우는 특색있는 초고층살림집들, 록색형, 에네르기절약형으로 꾸려진 거리의 이모저모에 이르기까지 그에 대한 한결같은 찬탄과 감동의 목소리들뿐이다.

그 목소리들가운데서 한 녀인의 말은 지금도 나에게 깊은 여운을 남겨준다.

《려명거리를 보면 마치도 금강산의 1만2천봉우리를 그대로 옮겨놓은것 같아요. 70층초고층살림집은 금강산의 비로봉같기도 하고 그 주위에 들어선 55층, 40층을 비롯한 고층살림집들은 마치도 정교하게 다듬은 총석정의 기기묘묘한 바위들이 들어선것 같지 않아요?》

《정말 그렇군요. 요전날 보니 70층초고층살림집에 구름이 걸려있는것처럼 보이던데 꼭 비로봉정점에 구름이 걸려있는 한폭의 명화같더군요.》

《그러니 우리 려명거리는 평양의 〈1만2천봉우리〉라고도 할수 있군요.》

평양의 《1만2천봉우리》!

결코 웃음속에 들리는 말이 아니다.

이 아름다운 절경이 정녕 어떻게 마련되였던가.

지난 3월 인민들이 다자는 이른 새벽에 완공을 앞둔 려명거리를 찾으시여 려명거리에서 살게 될 인민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눈에 선히 떠오른다고, 인민들에게 태양절까지 려명거리건설을 끝내겠다고 약속하였는데 그것을 지킬수 있게 되였다는 생각, 우리 인민들과 또 하나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에 기분이 정말 좋다고 말씀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태양의 미소가 우렷이 안겨온다.

인민의 행복넘친 웃음소리, 로동당만세의 환호성을 더 높이 울려주시려 그이께서 이른 새벽과 깊은 밤에도, 흙먼지 날리고 비바람쳐도 쉬임없이 찾고찾으신 날들은 그 얼마였던가.

그 사랑에 떠받들려 력사의 그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야만적인 《제재》소동이 우리 삶의 공간을 위협하고 침략과 전쟁에서 악명을 떨쳐온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깡그리 동원된 핵전쟁소동이 공화국을 말살하는데로 총집중된 그런 가혹한 속에서도 려명거리는 세계를 놀래우며 거연히 일떠섰던것이다.

이렇게 솟아난 평양의 《1만2천봉우리》였다.

금강산의 1만2천봉우리는 수백년, 수천년 세월의 흐름이 가져다준 자연의 절경이지만 평양의 《1만2천봉우리》-려명거리는 인민에 대한 불같고도 위대한 사랑이 안아온 사회주의선경이다.

세계는 금강산의 1만2천봉우리, 만복의 별천지가 회한하게 펼쳐진 려명거리에서 일심단결과 자강력으로 강대하고 만리마속도로 폭풍노도쳐 내달리는 영웅조선이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성공탑, 인민의 리상사회를 어떻게 일떠세우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춘 경

그쯘히 갖추어진 편리한 생활환경

21세기의 에네르기절약형거리, 록색형거리로 훌륭하게 일떠선 려명거리의 또 하나의 자랑거리는 사람들의 생활에 편리한 온갖 조건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는것이다.

70층초고층살림집과 55층살림집사이의 기단층을 하나로 련결시킨 곳에 꾸려진 종합상업구를 놓고 보아도 잘 알수 있다. 4층으로 된 종합상업구에는 대성산상점, 금강상점, 룡흥물고기상점, 대흥락원상점, 만리마종합상점, 매봉산상점, 룡흥비단상점 등 10여개의 상점들과 약국, 꽃방, 사진관, 어린이놀이장, 정보기술교류사 등 현대적인 봉사망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려명거리에 입사한 주민들은 아무때나 승강기를 타고 아빠트밑에 있는 종합상업구로 내려와 이곳에서 필요한 온갖 봉사를 받고있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꾸려진 상점들에는 건재류, 공업품, 식료품, 기공구, 전자제품을 비롯하여 우리 상표를 단 수많은 각종 질좋은 상품들이 들어차있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갓 봉사를 시작하였지만 종합상업구는 많은 사람들로 흥성이고있다. 사진관에 들려 가족사진을 찍는가 하면 식당에서 맛좋고 영양가높은 특색있는 민족음식들과 다른 나라의 이름난 료리들도 맛보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있다.

려명거리에서 살게 된 아이들이 너도나도 찾는 곳은 종합상업구에 꾸려진 실내놀이장이다. 깜찍하게 생긴 갖가지 장난감들을 가지고 놀기도 하고 미끄럼대와 그네 등을 타며 좋아라 뛰노는 아이들로 붐비는 어린이놀이장이다.

이곳에서 만난 최향미 녀성은 《아빠트밑에 상점들만이 아니라 어린이들을 위한 실내놀이장까지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우리 유진이는 이곳에 들어오면 좀처럼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아 야단이다.》며 웃으며 말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새 품종의 잔디들이 주단처럼 펼쳐져있고 복숭아꽃, 살구꽃들이 활짝 피여난 야외공원들에 가면 롱구와 배구, 정구, 바드민톤 등을 하느라 여념이 없는 사람들과 로라스케트를 타고 재주를 부리는 학생소년들의 희열과 랑만에 넘친 모습들도 볼수가 있다.

려명거리의 봉사망들과 문화정서기지들에서 기쁨과 랑만의 웃음꽃을 피워가는 사람들, 행복넘친 그 모습이야말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세계가 펼친 또 하나의 사회주의문명의 참모습이다.

본사기자 류 현 철

려명거리의 《고위층》

며칠이 지났지만 새집들이하는 날에 체험했던 기쁨과 감격을 아직도 잊을수 없다. 아니, 그것은 일생토록 잊혀지지 않을것이다.

《받으십시오. 새 집의 열쇠입니다.》

그날 군인건설자들이 넘겨주는 집열쇠를 손에 받아드는 순간 나는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꿈이 아닌 현실이였다. 이제 열쇠로 새로 받은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를 맞이할 더 큰 행복이 거기에서 기다리고있다고 생각하니 끓어오르는 격정을 진정할수가 없었다.

열쇠는 작아도 사실 그것은 행복의 큰 열쇠였다. 이 세상 누구나 쥐지 못하는 부러움의 열쇠, 행운의 큰 열쇠였다.

이 집을 마련하는데 우리는 돈 한푼 낸것이 없다. 품 하나 들인것도 없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많은 자금과 품을 들여 21세기의 에네르기절약형, 록색형거리를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고 무상으로 우리에게 배정해주었다.

평범한 교원, 연구사들에게 이처럼 훌륭한 집을 주고 고급가구와 비품까지 그쯘히 갖추어주는 이런 고마운 제도가 이 세상 또 어디에 있겠는가.

그런데도 남조선의 극우보수언론들이 려명거리살림집에 《고위간부들》이나 《엘리트층》들이 입사한다고 황당한 거짓말을 하며 그 무슨 《인권》나발을 불어대고있으니 격분을 누를길 없다.

하다면 이제라도 여기에 와 제눈으로 보고 말을 해도 해야 할것이다. 우리가 궁궐같은 새 집을 받게 된것은 교육자, 연구사이기때문이다. 몇해전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돌아본 한 해외동포는 조선에서는 교육자, 과학자들이 《제일 높은 사람》들이라고 감탄을 터치였다고 한다.

제일 높은 사람.

사실이 그러했다. 려명거리에서는 우리 원수님께서 제일 아끼고 내세워주시는 공화국의 《고위층》들이 산다.

바로 우리 교육자, 연구사들이.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과학연구원 연구사 리 성 철

따스한 보금자리

만사람의 축복속에 려명거리의 궁궐같은 새 살림집들에서 꿈같은 나날을 보내고있는 교원, 연구사들, 철거세대 주민들은 평범한 자기들에게 사랑의 금방석, 행복의 보금자리를 거듭거듭 안겨주는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고마움으로 눈시울을 적시고있다.

초고층살림집의 창가에서 새 세대 연구사인 김광혁은 안해 김송이와 함께 황홀한 려명거리의 전경을 감동속에 바라보며 마음속진정을 이렇게 터쳤다.

눈을 뜨고도 꼭 꿈을 꾸는것 같다. 세상에 소리치며 자랑할만 한 연구성과도 내놓은것도 없는 이름없는 연구사에게 분에 넘치는 혜택을 안겨준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은덕에 눈물이 솟구쳐오른다.

진정에 겨운 인민의 목소리는 55층살림집의 2층 2호에 보금자리를 편 최병성가정에서도 울려나왔다.

크고 덩실한 살림방이며 가정주부들이 리용하는데 편리하게 잘 꾸려진 부엌의 여기저기를 쓸어보는 안해 표승옥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여났다. 최병성과 그의 가족은 살림방마다에 친어버이의 정이 따스히 스며있어 집문턱을 선뜻 넘어설수 없었다고 하면서 고마운 어머니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어찌 이들 가정뿐이랴. 려명거리에 입사한 모든 가정들의 기쁨과 환희가 저 하늘끝에 닿았다.

려명거리에서 새집들이 한 사람들의 기쁨과 행복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고있을 때 한지맥으로 잇닿은 남조선에서는 이 시각에도 제 집이 없어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설음에 찬 눈물이 그칠줄 모른다.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다람쥐도 제 굴이 있다는데 제몸 담을 변변한 집이 없어 남의 집 세방살이를 하는 사람들의 서러운 심정은 이루 표현할 수 없다.

지금 남조선 전체 주민세대의 근 절반에 달하는 700여만세대가 제 집이 없이 살고있다. 세방조차 없어 0.5~1평 되나마나한 쪽방, 판자집, 천막, 짐함, 움막 등 집 아닌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68만세대에 달한다.

반면에 극소수의 특권족속들은 평균 5채이상의 고급주택들을 가지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있다. 강부자동네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제일 작다고 하는 호화주택의 값은 일반로동자가 100여년동안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고 한다.

전세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뛰여올라 돈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방살이마저 포기하고 한지에 나앉고있는 형편이다.

평범한 로동자, 사무원들, 과학자, 교육자들이 국가로부터 궁궐같은 새 집을 무상으로 받아안는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와 얼마나 대조적인가.

집값이란 말조차 모르고 행복의 계단을 오르는 이 나라의 가정들의 기쁨에 넘친 모습들은 사회주의만복속에 참다운 인권을 누려가는 공화국인민들의 긍지높은 삶을 온 세상에 전하고있다.

본사기자 홍 범 식

불을 즐기는자는 불에 타죽는다

남조선의 호전세력이 그 무슨 《북의 핵, 미싸일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목밑에 북침을 위한 전쟁연습과 무력증강소동에 계속 광분하고있다.

이미전에 그 누구의 《도발에 대비》한다는 미명하에 미국의 핵항공모함전단을 끌어들인 남조선호전세력은 외세와 함께 동해에서 련합해상훈련을 계속 강행하는 한편 남조선강점 미군의 《아파치》공격용직승기구분대를 서해열점수역에 배치하는 군사적망동을 부리였다.

이와 함께 유사시 《참수작전》을 비롯한 《특수작전》을 담당할 특수임무려단을 올해중에 창설하려고 서두르면서 다음해까지 특수침투용수송기 4대를 도입하려는것을 비롯하여 특수부대용 무장장비를 갖추는데 열을 올리고있다.

이밖에도 남조선호전세력은 정찰위성의 개발 및 도입과 중거리요격미싸일의 실전배비, 미국의 《F-35A》전투기를 단계적으로 끌어들이는 등 각종 첨단무기들을 개발도입하여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에 리용하려고 발광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전쟁열에 들뜬 외세와 함께 위험천만한 북침선제공격을 기어이 감행하려는 용납못할 범죄행위가 아닐수없다.

얼마전까지 남조선호전세력은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강화조치를 악랄하게 걸고들며 외세와 야합하여 각종 최신핵전쟁장비들을 다 끌어다놓고 사상 최대규모의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수개월간이나 광란적으로 벌리였다. 내외호전광들은 이 전쟁연습의 목적이 공화국의 《수뇌부제거》와 《제도전복》에 있다는것을 숨기지 않았으며 그를 위한 각종 특수작전연습과 실동훈련에 미쳐날뛰였다.

그런데 그 화약내가 채 가셔지기도 전에 남조선호전광들이 공화국의 핵억제력을 겨냥한 군사적 도발소동을 계속 벌리고있는것은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기어이 불을 달려는 위험천만한 침략흉계의 발로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루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르는 격의 가소로운 망동에 지나지 않는다.

공화국은 동방의 핵강국, 아시아의 로케트맹주국이다. 얼마전 태양절경축 열병식광장에 출현한 위력한 전략무기들에 대한 평가와 분석으로 내외여론이 죽가마끓듯 하고있는것도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급해맞은 남조선호전세력이 선제타격체계를 구축한다, 《특수전능력을 강화》한다 하며 무력증강에 분주탕을 피우고있지만 그것은 《북의 핵 및 미싸일위협》과 《국방현대화》의 간판밑에 인민들의 혈세를 짜내여 미국상전에게 퍼주고 파고철과 같은 무기들을 사들이는 대가로 권력을 유지하고 제 돈주머니를 불리우려는 더러운 협잡군, 모리간상배들의 짓거리에 불과하다.

온통 결함투성이이고 성능도 변변치 못한 엉터리장비로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국력에 맞서보겠다는것이야말로 맨머리로 천년바위를 깨보겠다는 격의 어리석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남조선호전광들이 미국의 《특수작전》과 선제타격기도를 실현하기 위한 돌격대가 되여 살인장비들을 끌어들이며 아무리 날뛰여도 공화국의 섬멸적타격앞에서는 순간에 파철더미로, 엿가락으로 녹아버리게 될것이다.

남조선호전광들이 공화국의 평화수호의지에 도전하면서 군사적도발을 걸어온다면 그것이 빚어질 참혹한 후과는 상상도 할수 없을것이다.

전쟁부나비들의 부질없는 추태가 불러올것은 오직 비참한 자멸뿐이다.

본사기자 주 광 일

만평 악 성 모 기

테로광신자들은 천벌을 면치 못할것이다

우리의 삶과 운명의 전부인 최고존엄을 해치자고 《참수작전》과 같은 악랄한 특대형도발을 꿈꾸어온 미국과 남조선의 모략대결광신자들은 생화학물질에 의한 테로흉계도 서슴지 않고있다.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겨냥한 적대세력의 음모는 더이상 용납할수 없는 극단적인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 인민이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마음의 기둥, 태양으로 받드는 최고수뇌부를 어째보려고 마지막도박에 매달리고있는 적들의 천인공노할 망동은 우리 교육자들과 청년학생들을 분노케 하고있다. 미국과 남조선의 적대세력의 테로음모는 우리의 위대하고 성스러운 최고존엄에 대한 가장 악랄하고 비렬한 또 하나의 특대형도발이며 우리 제도에 대한 공공연한 선전포고이다.

수뇌부결사옹위는 우리 인민의 제일생명이다. 우리의 최고존엄을 해치려는 원쑤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려는 분노와 멸적의 증오심이 우리 교육자들과 학생들의 마음속에서 불도가니처럼 끓고있다.

우리 인민의 수령보위의 지를 담아 공화국은 정의의 반테로타격전으로 테로광신자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할것이라는것을 천명하였다.

생명보다 더 귀중하고 신성한 우리의 최고존엄에 도전하는 특대형도발자들을 마지막 한놈까지 찾아내여 이 하늘아래 살아숨쉴수 없게 모조리 죽탕쳐 매장해버릴것이라는것이 우리 교육자들과 청년대학생들 그리고 전체 인민의 치솟는 적개심이고 의지이다.

무엄하게도 감히 태양을 가리워보려고 하늘에 삿대질을 하는 특대형테로광신자들은 반드시 천벌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김형직사범대학 후보
원사, 교수, 박사
김 용 부

《최대의 압박과 관여》는 국가테로정책

미국이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해치려는 특대형테로를 시도한데 이어 간첩들과 적대암해분자들을 리용한 《대북정보부대》의 활동까지 재개하려 하고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올해 10월까지 미8군 501군사정보려단에 《대북인적정보》수집을 전문으로 하는 524정보대대를 다시 내오려 하고있다.

2013년에 해산되였다가 이번에 다시 조직되는 524정보대대는 《탈북자》들을 직접 심문하는것은 물론 공화국북반부에 간첩을 박아넣어 정탐행위까지 하게 된다고 한다.

남조선강점 미군이 《대북정보부대》를 다시 부활시켜 리용하려는것은 공화국의 《수뇌부제거》와 《제도전복》등에 필요한 정보를 새로운 방법으로 확보해보려는 불순한 흉계가 깔려있다.

이것은 공화국의 최고수뇌부와 전략적대상들을 겨냥한 로골적인 침략적도발로서 미국의 반공화국정보모략책동이 극히 위험천만한 단계에 이르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로써 미행정부가 새로 고안해낸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대조선정책이 결국 공화국의 《수뇌부제거》와 《제도전복》을 노린 국가테로정책이라는것이 여실히 드러나고있다.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국가테로행위는 어제오늘에 와서 시작된것이 아니다. 지난 세기 중엽에 벌써 미국은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대미문의 전쟁을 도발하였으며 그후 수십년동안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려왔다.

지난 세기 90년대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후 미국은 공화국에 압살의 화살을 집중하였다.

추종세력들을 규합하여 국제적인 압력을 들이대는 등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미국의 국가테로행위에는 전례없는 군사적 압력과 사상문화적침투책동, 정치외교적고립과 경제봉쇄 등 횡포하고 극악한 모든 수단과 방법이 다 동원되였다.

이번에 미국이 남조선의 정보기관을 끌어들여 공화국의 최고수뇌부를 상대로 감행하려던 생화학물질에 의한 테로행위는 반공화국테로행위의 연장이며 최고절정이다.

미국의 발악적인 책동은 세기를 이어오는 조미대결전에서 수치스러운 참패만을 거듭해온 패배자의 가련한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지금까지 공화국에 기여들어 불순한 정탐모략과 적대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체포된 미국과 남조선의 불순분자들은 준엄한 징벌을 면치 못하였으며 앞으로도 그런 신세가 될것이다.

자기 수뇌부와 제도를 한목숨 다 바쳐 보위하려는 신념과 의지로 충만되여있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이미 경고한대로 감히 《수뇌부제거》와 《제도전복》의 개꿈을 꾸는 미국의 정보모략군들과 남조선하수인들을 끝까지 찾아내여 무자비한 징벌을 가하게 될것이다.

정 문 혁

어리석은 대조선정책은 미국을 위험에 빠뜨리고있다

국제인터네트신문에 실린 미국기자의 글

국제영문인터네트신문 《제4언론》이 4월 21일 미국기자 마이크 위트니의 글 《미국이 조선의 핵보유를 초래하였다는것이 사실인가, 거짓인가》를 게재하였다.

글은 인간은 위협과 공갈, 야수성에 대해 깊은 원한과 함께 맞받아 싸우려는 감정을 가지게 된다고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썼다.

미국의 대조선정책은 《당근과 채찍》이 아니라 《몽둥이와 더 큰 몽둥이》이다.

이러한 정책은 철두철미 욕설과 위협공갈, 야만적인 무력으로 모든 사람들을 자기가 바라는대로 복종시킬수 있다는 전제에 기초한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이러한 대조선정책은 통하지 않았다.

북조선은 그에 대처하여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였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의 정책이 실패하였다고 하는것보다는 완전히 파탄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크게 3가지가 있다고 본다.

첫째로, 우리는 미국의 현 대조선정책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하였다는것을 인정해야 한다.

대조선정책은 잘못된것이였으며 우리가 바라지 않던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강권과 위협이 북조선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떠밀었다는데 대해 론쟁을 불러일으킬수도 있지만 이러한 론쟁은 후날로 미루기로 하자.

기본은 정책자체가 잘못되였음을 인정하는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정세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데 대해 인정해야 한다.

북조선은 현재 핵무기를 가지고있으며 이것은 북조선이 핵보유국이라는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정책작성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곱씹어 되새겨볼 필요가 있으며 싫든 좋든 점차적으로 리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북조선이 현재 오사까와 도쬬, 서울을 단추 하나로 재더미로 만들어버릴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있다는것을 알게 된다면 누구든 심중해질수밖에 없을것이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이것은 이른바 《군사적선택안》은 더이상 실행가능한것이 아니며 락우에서 없애버려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군사적선택은 핵전쟁을 초래할것이며 이것 역시 우리가 바라는 결과는 아니다.

셋째로, 우리는 지난 64년간 실패한 정책의 후과로 조성된 미국의 국가안전에 대한 새로운 위협들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그에 대한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미국의 어리석은 정책이 북조선으로 하여금 미국본토를 타격할수 있는 핵무기와 탄도미싸일기술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고있으며 그로 하여 우리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고있다는것이다.

이것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중에 있다. 우리는 이에 될수록 빨리 대응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문명국들이 하는대로 행동해야 한다.

우리의 정책을 수정하고 외교적노력에 힘을 넣으며 북조선과의 건설적인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

북조선에 평화협정체결을 포함한 안전담보를 제공해주어야 하며 여기에서는 미국이 북조선을 절대로 침략하지 않겠다는것과 조선반도에서 미강점군과 무력을 모두 철수시키기 위한 엄격한 시간표를 명백히 제시해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행정부는 무엇을 하고있는가.

이와는 정반대로 행동하고있다.

트럼프행정부는 위협적인 발언의 도수를 점점 높이고있으며 군대를 비상태세에 진입시키고 조선수역에 항공모함타격단을 들이밀고있으며 군사적선택을 운운하며 위협을 가하고있다.

64년간의 실패후에도 그들은 같은 정책에 매달리기로 결정하였다.

미국은 지난 시기의 잘못에서 교훈을 찾으려 하지 않고 같은 길을 계속 걸어가고있다.

본사기자

맥빠진 《제재》타령

최근 날로 강화되는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국력앞에 기가 질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반공화국제재를 더욱 강화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얼마전 미국회 하원에서 초강도 《대북제재법안》이라는것을 통과시킨것만 보아도 잘 알수있다.

가관은 공화국의 막강한 위력과 도도한 전진에 전전긍긍하는 상전의 가긍한 처지도 가려볼줄 모르고 《환영》이요 뭐요 하면서 맞장구를 치는 남조선 친미보수세력의 역겨운 추태이다.

미국회 하원에서 《대북제재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보수세력은 《단호한 북핵대응의지를 보여준것》이라느니, 《북에 대해 다시한번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될것》이니, 《북의 핵포기를 끌어낼수 있는 초석》이니 뭐니 하고 어처구니없이 놀아대였다. 그런가하면 《북에는 대화가 아니라 제재만이 필요한 시점》이니 하면서 얼빠진 수작질을 늘어놓고있다.

과연 동족대결에 환장한자들의 추태가 아닐수 없다.

공화국이 지난 수십년동안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집요하고 악랄한 제재소동속에서 끄떡하지 않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벌리고있다는것은 세계가 인정하고있다. 공화국이 수소탄까지 보유한 동방의 핵강국, 강력한 핵타격수단들을 가진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위력을 높이 떨치고있는것도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책동속에서 이루어진것이다. 평양에 려명거리가 훌륭히 일떠서고 각지에서 힘차게 타번지고있는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속에 날에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신화들이 창조되고있는것은 그에 대한 뚜렷한 실증으로 된다.

오히려 반공화국제재소동에 미친듯이 매여달리던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총파산에 직면하게 되였으며 그에 편승하여 동족대결에 광분하던 박근혜역적패당이 민심의 준엄한 심판속에 비참한 말로를 맞았다.

초보적인 현실감각도 없이 무턱대고 동족대결에서 살길을 찾으며 아직도 제재와 압박이라는 잠꼬대를 늘어놓고있는 남조선의 보수세력을 두고 세인들이 비난과 조소를 아끼지 않고있다.

예로부터 두꺼비 통꿈꾸다가 피똥을 싼다고 했다.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은 《북핵포기》, 《체제변화》와 같은 개꿈에서 깨여나 민심의 지탄속에 시궁창에 처박힌 저들의 운명이나 한탄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동족과 민심을 등진 사대매국세력에게는 앞날이 없다.

본사기자 김 명 성

권력광신자들의 비참한 말로

비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탈취한 후 민심을 거역하는 온갖 못된짓만을 일삼다가 감옥에 처박힌 박근혜의 비참한 말로는 남조선인민들로 하여금 지나온 수십년간의 력사를 다시금 돌이켜보게 한다.

지금까지 남조선에서 권력광신자들의 말로는 하나같이 비참하였다.

《유신》독재자로 악명떨친 박정희역도의 운명이 바로 그러하였다.

미국의 배후조종밑에 5.16군사정변을 일으키고 총칼로 권력을 탈취한 박정희군사깡패도당은 남조선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깡그리 말살하고 온 남조선땅을 인권과 민생의 암흑지대로 만들어버렸다. 《유신》철폐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인 투쟁에 의해 결국 《유신》독재자는 심복의 총탄에 맞고 종말을 고하게 되였다.

12.12숙군쿠데타와 5.17파쇼폭거로 권력을 찬탈한 극악한 군사깡패인 전두환역도와 로태우역도 역시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극악무도한 파쇼통치만을 일삼다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줄줄이 감옥행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박근혜의 운명도 마찬가지이다.

2012년 《대선》에서 갖은 비렬하고 비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강탈하고 제 애비의 비참한 운명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가혹한 반인민적악정과 파쇼독재를 일삼았다. 극악한 동족대결정책으로 북남관계를 완전파국에로 몰아갔다.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하여 끊임없는 북침핵전쟁소동으로 시종 민족의 머리우에 열핵전쟁의 불구름만을 몰아왔다.

박근혜에 대한 원한과 분노는 남조선도처에서 천수백만명이 참가한 수개월간의 초불항쟁으로 타번지였으며 민심은 천하의 독재자이며 반통일악녀인 박근혜에게 준엄한 파멸을 선고하였다. 지금 《대통령》자리에서 쫓겨나 감옥살이를 하며 재판받고있는 박근혜의 비참한 처지는 살기뻗치고 기세등등하던 어제날의 모습과는 판이하다.

남조선의 력대 친미보수《정권》과 독재자들의 비참한 말로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남조선의 보수패거리들이 하나같이 권력광신자들이며 파쇼와 부패, 동족대결, 악정과 외세굴종에 쩌든 죄악의 무리들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리고 그 종착점은 치욕과 파멸의 함정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있다.

민심에 도전하면 징벌을 받는다는것은 남조선의 흘러온 나날들이 잘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에서 그가 누구든지 반인민적악정과 파쇼독재,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을 일삼으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력대 독재자들과 같은 비참한 운명을 피할수 없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영 진

식민지노복의 가긍한 처지

최근 미국내에서 조미회담과 관련한 일련의 발언들이 울려나오고 미행정부 고위인물들이 《미국은 북정권교체나 붕괴를 목적으로 하고있지 않다.》, 《북체제를 보장할것이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것》이라고 거듭 밝히며 공화국에 대한 접근자세를 드러내놓고있다.

이에 남조선보수패당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면서 미국이 《〈최대의 압박〉에 이어 〈최대의 관여〉를 시작한것으로 보인다.》, 《〈북핵포기〉가 대화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이 변하지 않게 미국을 계속 설득해야 한다.》고 고아대고있다.

동족대결병자인 윤병세는 얼마전 미행정부의 대조선정책에 대해 그 방점은 《제재와 압박》이라느니, 《아직은 북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느니, 《대북정책에서 〈한〉미간은 공통된 립장》이라느니 뭐니 하고 력설하였다. 외교부 대변인이라는것도 나서서 미국의 조미관계동향에 대해 《대화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북핵폐기가 대화의 전제조건이라는 기본원칙은 바뀌지 않았다.》고 떠들어댔다.

설상가상으로 공화국과 미국과의 《반관반민》접촉움직임이 있다는 외신보도에 접하게 된 남조선보수패당은 《동향을 주의깊게 파악하고있다.》느니, 《〈통미봉남〉차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느니 뭐니 하며 신경을 곤두세우고있다.

력사적으로 남조선보수패당은 《혈맹》이니, 《굳건한 동맹관계》니, 《찰떡공조》니 하고 입이 닳도록 미국을 극찬해왔지만 언제한번 온전한 대접을 받은적이 없다.

미국에게 있어서 남조선은 저들의 국익을 위해 마음대로 부려먹는 식민지노복,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에 내몰기 위한 돌격대, 한갓 총알받이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이 《싸드》배치에 이어 비용까지 부담하라며 강박하고 《〈한〉미자유무역협정》 폐기를 요구하여 남조선보수패당이 뒤통수를 얻어맞고 박대와 무시를 당한것은 그 하나의 실례에 지나지 않는다.

70년이상 외세의 더부살이로 살면서 상전의 표정과 태도변화에 늘쌍 속이 조마조마해있는 남조선보수패당의 꼬락서니가 정말 가긍하기 짝이 없다.

내외여론들도 지금 남조선보수패당이 토끼사냥이 끝나 주인에게 삶아먹히게 되는 필요없는 사냥개의 처지에 있다고 평하고있다.

이것은 그 누구든지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매여달린다면 민족의 저주와 규탄을 받는것은 물론 대국들의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되거나 비루먹은 개처럼 이 발길, 저 발길에 채우는 가련한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된다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공화국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운명과 관련하여 미국과 회계할것이 많다.

그런데 미국의 식민지하수인으로 아무런 권한도 자격도 없는 남조선보수패당따위가 조미사이에 간참질해보려는것이야말로 제 푼수도 모르는 주제넘은짓이 아닐수 없다.

오늘 공화국의 지정학적중요성과 전략적가치는 날로 상승하고있으며 핵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들어선 평양으로 향하는 길은 온 세계에 뻗어있다.

남조선보수패당이 뼈다귀를 덮친 개처럼 아무리 사납게 짖어대도 대세는 공화국의 의지에 따라 흘러갈것이며 상전에게서 받는 식민지노복의 대접은 결코 달라지지 않을것이다.

본사기자 현 은 경

가련한 신세

광주인민봉기당시 남조선군의 만행 폭로

남조선에서의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전남대학교병원이 1일 광주인민봉기당시 남조선군이 감행한 야수적만행의 일부를 폭로한 병원의료진의 증언집 《5.18 10일간의 야전병원》을 공개하였다.

야수들의 만행을 직접 체험한 병원성원들은 당시를 회상하며 치를 떨었다.

증언집에는 봉기당시 《계엄군》의 공격을 받고 병원에 실려온 희생자들과 부상자들의 처참한 모습, 밤낮없이 진행된 구급수술, 시민들의 자원적인 헌혈 등 참혹하고 긴박했던 상황들이 밝혀져있다.

본사기자

공범자들의 마지막범죄자취

사람은 뒤모습이 고와야 한다는 말이 있다.

남조선에서 파면당한 박근혜의 수족노릇을 하던 잔당들이 《정권》교체이후에도 권력을 행사해보려고 버드럭대고있어 사람들의 눈총을 받았다고 한다.

총리였던 황교안은 《대통령》권한대행을 하던 지난 4일 《국정공백》을 운운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요청하면 협조하겠다.》고 떠벌이며 《정권》교체이후에도 《총리》자리에 계속 눌러앉아있으려는 속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냈다고 한다.

통일부 장관 홍용표는 한수 더 떠서 12일 대학생기자단행사에 장관자격으로 참가하겠다고 하여 손가락질을 받았다.

그런가하면 청와대비서실의 박근혜부역자들도 《대선》림박까지 버티고있다가 7일에야 사표를 제출하였다.

권력에 미쳐버린 인간추물, 체면도 모르고 리성도 잃은 인간오작품들의 후안무치한 추태가 아닐수 없다.

박근혜의 파면과 함께 마땅히 사표를 내고 민심의 판결을 받아야 할자들이 왜 권력의 자리를 내놓지 않으려고 안깐힘을 썼겠는가 하는것이다.

《국정공백》이니, 《예정된 행사참가》니 하는것은 구실에 지나지 않고 저들의 《성실성》을 보여주어 박근혜의 공범자, 부역자로서의 죄과를 조금이라도 덜고 권력이 아직 수중에 있는 기간에 박근혜의 죄과들을 철저히 은폐시켜 심판의 날을 조금이라도 미루어보려는 수작이였고 술책일것이다.

황교안의 경우 청와대 비서실것들과 함께 《〈세월〉호 7시간행적》을 비롯한 박근혜의 특대형죄악들을 《대통령기록물》로 정하고 30년간의 세월속에 묻어버렸으며 홍용표는 《대통령》선거가 끝난 다음날까지 회의를 열고 《북비핵화》니 뭐니하고 반통일, 동족대결나발을 불어대며 박근혜의 《대북정책》을 정당화해보려고 모지름을 썼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과 우리 민족앞에 씻을수 없는 만고죄악을 저지른 박근혜의 부역자들만이 저지를수 있는 또 하나의 비렬한 범죄행위이다.

그런자들때문에 남조선에서 초불민심이 바라던 새 정치, 새 생활을 안아오는게 그토록 어려운것이다.

박근혜잔당들이 마지막까지 죄악에 죄악을 덧쌓으며 발악한다면 더욱 헤여날수 없는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것이다.

제가 지은 죄는 벌을 받기마련이다.

박 철 우

해체되여야 할 박근혜부역당

남조선에서 부패무능한 보수의 권력야망은 끝이 없다.

얼마전에도 보수패거리들은 《좌파〈정권〉이 서면 전쟁난다.》느니, 《친북좌파세력을 청산하자.》느니 하는 극단적인 《색갈론》, 《종북론》을 내걸고 보수의 재집권을 위해 《보수대통합》, 《보수후보단일화》에 열을 올리였다. 《자유한국당》은 《친박청산》을 떠들며 저들이 《징계》했던 친박계우두머리들에 대한 《징계》를 해제하였는가 하면 《바른정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을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그런가하면 《박사모》니, 《엄마부대》니 하는 보수떨거지들은 《친북좌파에게 운명을 맡길수 없다.》,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있다.》고 줴쳐대면서 권력을 다시 탈취하려고 발작증을 부리였다. 권력암투로 척을 지고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으로 갈라지던게 언제인데 《대통합》이니, 《후보단일화》니를 떠들어댔으니 권력과 리해타산을 위해서는 조석으로 변하는 칠면조들, 환경에 따라 리합집산을 능사로 하는 카멜레온들이 바로 남조선보수떨거지들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지어 박근혜를 로골적으로 비호하고 인민들의 대중적인 초불항쟁을 《종북세력의 란동》으로 외곡하고 엄중히 모독한것도 보수패거리들이다.

보수세력들은 과거의 오물통에 처박힌 《박정희향수》를 다시 일으키며 민심을 흔들어보려고 하였고 박근혜에 대한 《사면설》, 《출옥설》을 내돌리며 악녀에 대한 《련정》을 로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박근혜《정권》에 의하여 빚어진 최악의 참사인 《세월》호의 인양을 두고 남조선인민들이 《박근혜가 내려가니 〈세월〉호가 올라온다.》고 기뻐할 때도 보수세력과 그 후보들은 《〈세월〉호를 3년동안 우려먹었으면 됐다.》느니, 《더이상 특정집단의 정치적리용은 허용할수 없다.》느니 하며 고아대며 박근혜와 련계시키지 말라고 떠벌여댔다.

또 여론조사에서 저들에 대한 지지률이 낮게 나온다고 하여 언론을 향해 《집권하면 응징하겠다.》느니, 《목을 다 잘라야 한다.》느니 하는 폭언을 내뱉으며 파쇼적, 독재적기질을 그대로 표출하였다.

지금도 그들은 《보수통합》을 부르짖으며 더러운 목숨들을 부지해보려 하고있다.

민심의 준엄한 사형선고를 받은 산송장들, 악녀와 꼭같이 청산되여야 할 부역자들이 력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보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있는것이다.

초불민심에 아직도 공공연히 도전해나서는 부패보수세력에게는 앞날이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부패보수의 완전한 청산을 부르짖고있다.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을 비롯한 박근혜의 부역당들은 민심을 바로 알고 스스로 당을 해체함이 마땅하다.

본사기자 김 정 혁

남조선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진행

남조선에서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진행되였다.

이번 선거는 피뢰정치사상 전대미문의 죄악을 저지른 박근혜역도가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에 의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것으로 하여 조기에 치르어진 선거였다.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재인, 국민의 당 후보 안철수, 《자유한국당》후보 홍준표, 《바른정당》후보 류승민, 정의당후보 심상정 등 13명의 후보들이 출마하였다.

이번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재인이 41%의 득표률로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였다.

본사기자

범죄의 흔적을 가리우려는 술책

최근 남조선에서 이전 《대통령》권한대행 황교안이 수만건의 청와대문서들을 비공개《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사실이 드러나 남조선 각계가 법석 끓고있다.

황교안에 의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청와대문건들중에는 박근혜가 《세월》호참사당일 구원의 손길을 바라는 어린것들의 호소를 외면한채 청와대에 드러누워 제 볼장만 본 《의혹의 7시간》을 밝히는데서 중요한 단서로 되는 증거자료들도 있다.

그런데 비공개《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는 15~30년동안 공개할수 없으며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거나 기록물이 보관되여있는 지역의 고등법원 원장이 령장을 발부한 경우에만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열람할수 있게 되여있다고 한다.

결국 황교안은 《대통령》권한대행의 지위를 악용하여 지금 진행하고있는 박근혜, 최순실패당에 대한 재판에서는 물론 앞으로도 《세월》호참사당일 구조사업을 의도적으로 방임한 박근혜의 살인범죄행위를 파헤치는것을 곤난하게 만들어놓은것이다.

《세월》호는 인양되였지만 진상을 규명하고 범죄자들을 징벌할것을 바라는 유가족들의 피타는 소망은 진상이 드러나는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한사코 가로막으려는 박근혜패당들때문에 오늘까지도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더욱 놀라운것은 《대통령》권한대행이 자기가 직접 관여하지 않은 청와대문건들에 대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수 있다는 조항이 해당 법조문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협의절차도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실이다.

황교안의 행위는 박근혜가 저지른 범죄의 진상규명에 장애를 조성한것으로써 자기가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야 할 특급범죄자임을 스스로 드러낸것으로 된다.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는 《황교안이 마지막까지 박근혜의 범죄규명을 가로막아나섰다.》, 《〈세월〉호참사당일 7시간행적과 국정롱단사건의 핵심증거들이 어둠속에 묻히게 되였다.》, 《박근혜기록물 30년 비공개, 이게 말이 되냐.》는 등 비난의 목소리들이 그칠새없이 울려나오고있다.

특등범죄자인 박근혜의 죄악을 은폐하고 다 망한 보수를 되살려보려는 지독하고 파렴치한 보수패거리들은 응당히 쓸어버려야 할 사회악이며 오물이다.

본사기자 황 진 옥

《우정》의 외피를 쓴 수탈기구

지난 5월 4일 미국주재 남조선대사관에서는 미행정부의 고위인물들과 상하원의원들, 대사관의 어중이떠중이들이 모여 그 무슨 《주한미군전우회》라는것을 조작하였다.

미국과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은 2017년안으로 서울과 워싱톤에 각각 《주한미군전우회》지부를 설립하고 6.25전쟁이후 남조선강점 미군에서 복무하였거나 현재 근무중인 장병, 카츄사(미군에 소속된 남조선군)까지 포함하여 350여만명규모로 조직을 확대하려 하고있다.

사전적의미로 볼때 전우란 전투에서 생사를 같이 하며 함께 싸운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남조선강점 미군은 침략자, 강점자이며 남조선군은 그들의 총알받이, 대포밥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들사이에는 진정한 우의와 호혜, 사랑에 기초한 전우의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

미국의 대포밥, 식민지 고용군이며 상전이 발바닥을 핥으라면 핥아대는 주구에 불과한 보수패당이 《전우》니 뭐니 하는 자체가 똥개도 웃길 해괴한 일이 아닐수 없다.

더우기 남조선강점 미군은 70여년동안 우리 조국의 절반땅을 타고앉아 남조선인민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재난을 들씌우며 온갖 치떨리는 범죄행위를 꺼리낌없이 감행해온 날강도무리이다.

이러한 범죄자들을 국민의 혈세로 《부양》하고 상전의 환심을 사보겠다고 구역질나게 놀아대고있는 남조선보수패당들이야말로 쓸개빠진 천하의 역적들이다.

이 단체의 조작과 관련하여 미국이 《동맹간의 우의》에 대해 떠들지만 진짜 속심은 《주한미군전우회》와 같은 허울좋은 간판을 내걸고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와 북침전쟁책동을 미화분식하고 남조선인민들의 피땀을 빨아내여 배를 불리려는데 있다.

실지로 《주한미군전우회》의 발기당시 미국은 자국내에 있는 남조선강점 미군복무자들의 상금지불과 자녀장학금지급, 퇴역군인들의 남조선방문시 그에 대한 재정적지원 등을 이 단체가 맡아주어야 한다고 로골적으로 떠들었으며 그에 드는 자금은 미군이 남조선의 《안보》를 지켜준 대가로 남조선당국이 지불해야 한다는 조건부를 내놓았다.

그리고는 2015년 4월 워싱톤에서 열린 제7차 남조선미국통합국방협의체 회의때부터 이 문제를 주요 의제의 하나로 제시하면서 보수당국을 압박해왔다.

교활한 미국은 남조선사회의 여론을 기만하기 위해 4월 《주한미군전우회》를 재정적으로 후원할 《한미동맹재단》이라는것을 먼저 내오도록 하였으며 이후 《주한미군전우회》를 조작해냈다.

《한미동맹》재단에 대한 재정적지원은 보훈처와 국방부, 외교부를 비롯한 남조선《정부》가 부담하게 되여있다.

결국 남조선은 남조선강점 미군의 유지비뿐아니라 그들의 뒤치닥거리에 드는 비용까지 깨깨 뜯기우게 되였다. 남조선 각계층속에서 《주한미군전우회》를 《굴욕적인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지난 세기 친일역적들이 조작했던 〈일진회〉의 복사판》, 《차기 〈정권〉을 〈한미동맹〉의 틀에 얽어매놓기 위한 알박기》등으로 단죄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있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남조선을 예속의 사슬에 영원히 매놓고 남조선인민들의 피땀을 깡그리 짜내려는 파렴치한 미국에 염통도 쓸개도 다 꺼내바치면서라도 명줄을 부지하고 기어이 동족을 압살하려는 친미역적무리들의 비렬한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온갖 불행과 재난의 화근인 남조선강점 미군을 몰아내고 날강도들의 아가리에 민족의 리익을 깡그리 섬겨바치는 친미매국노들을 모조리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갈것이다.

본사기자 리 철 민

(시) 친미굴종의 광고

김 송 림

미국을 하내비처럼 섬기는
천하에 비굴한 친미역적들
또 하나 《희한》한 조직
상전과 함께 뚝딱해냈구나
《혈맹》을 자랑하는 《주한미군전우회》

얼마나 가소롭기 짝이 없느냐
《주한미군전우회》
회원은 자그만치 350여만명이라지
목적은 《한미동맹》강화
후원은 《한미동맹재단》…

푼수가 없어도 어느 정도이지
미국의 대포밥, 총알받이
둘도 없는 노복, 주구인 주제에
《전우》니 뭐니 떠드는 그 꼴이
이 얼마나 앙천대소할노릇인가

차마 눈 뜨고 볼수가 없구나
국민의 혈세를 비틀어 짜내여
《전우》를 《부양》하는 가련한것들
날강도와 입맞추며 돌아가는
매국역적들의 역겨운 추태
제 처지나 알고 입부릴 놀려야지

매돌에 깔리우고
못뽑이에 끼운 처지란 말 아느냐
예속의 사슬에 더더욱 얽매여
민중의 피땀 깡그리 섬겨바치며
구차스런 명줄 부지해야 하는
그 처지 참말로 가긍하기 그지없다

70여년 불행과 고통만을 들씌운
침략자의 환심을 사보려고
너절하게 놀아대는 그 추태
겨레는 본다 《주한미군전우회》에서
친미에 찌든 매국노들의 굴욕이 어떤것인지

날강도 미국의 《충실한》 주구
친미에 환장한 사대매국노들
아무리 황금빛 간판을 내걸어봐라
《주한미군전우회》
그것은 한낱 친미굴종의 광고일뿐이다

조선전쟁은 《일본의 축복》이 될수 없다

조선전쟁의 불집을 일쿠어보려는 내외호전광들의 움직임이 더욱 로골화되고있는 속에 최근 일본이 남조선에 있는 일본인들의 대피를 위한 그 무슨 《방안》이라는것을 검토하고있다고 한다.

여기에는 유사시 남조선의 민간항공역사들이 폐쇄되는 경우 남조선강점 미군이 륙로로 미국, 일본인들을 대피시키는 미국과의 공동대피방안도 포함되여있다고 한다. 이러한 대피방안이 실전에 필요한것이라고 볼 때 일본의 대피방안검토가 조선전쟁을 위한 사전준비의 일환이라는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다시말하여 일본은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있으며 이를 적극 바라고 부추기고있다.

지금 일본은 미국의 무분별한 침략전쟁소동에 맞장구를 쳐대며 조선반도의 전쟁위기를 부쩍 고취하고있다.

얼마전에도 일본은 현 미행정부의 반공화국《군사적압박》공세에 발맞추어 유사시 《정보수집문제》니 뭐니 하며 저들이 미국의 《최우선동맹국》임을 과시하는 추태를 부리였다. 그리고 미국이 조선반도수역에서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해 벌려놓은 련합해상훈련에도 해상《자위대》 함선들을 적극 참가시켰다.

일본이 노리는 목적은 무엇인가.

일본의 과거력사는 그 대답을 주고있다.

오래전부터 《대동아공영권》을 내흔들며 침략전쟁을 벌려왔으며 지난 세기에는 40여년에 걸치는 식민지지배를 통하여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들씌웠다.

그러던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망을 계기로 멸망의 나락에서 헤매이게 되였다. 바로 그때 일본에게 숨구멍을 열어준것이 바로 미국이 도발한 조선전쟁이였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일본은 자국령토를 통채로 미국의 침략전쟁수행을 위한 병참, 보급, 출격기지로 내맡겼다.

오끼나와를 비롯한 일본에 있는 미해공군기지들에서 출항, 출격한 각종 함선들과 전투기들이 전 조선땅을 페허로 만들었다.

많은 군사인원들을 조선전선에 파견하여 미군의 군사작전에 참가시키였다.

일본은 조선전쟁으로 《물질적번영》과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오늘날 일본은 그때의 환각에서 깨여나지 못하고 미국의 전쟁정책에 적극 가담해나서고있다.

제2의 조선전쟁으로 다시 한번 제 배를 채우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도 실현해보려고하고있다.

하지만 이것은 하늘의 무지개를 잡으려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망상이고 오산이다.

만일 제2의 조선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불길은 결코 조선반도에만 미치지 않을것이며 미군기지들이 널려있는 바다건너 일본은 절대로 무사치 못할것이다. 백년숙적 일본에 대한 공화국 군대와 인민들의 증오는 하늘에 치솟고있다.

만약 조선반도에서 미국에 의해 전쟁이 일어나면 바다건너 일본이 불바다가 되는것은 너무도 자명한 리치이다.

일본은 조선전쟁의 불길에 저들이 타죽지 않으려거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허 성 철

다시 찾아온 경천사 흰대리석탑 (5)

글 전 철 호, 그림 박 봉 혁

리상재는 자기보다 열살이나 아래인 장지연의 손을 덥석 그러잡으며 《큰몫이라니?》하고 물었다.

《선생님, 경천사석탑에 대한 깊은 래력을 잘 알고있는 억기가 이제는 사람들앞에서 그 모든것을 털어놓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들고일어나야 합니다. 만일 그 애가 석탑의 유래를 잘 알지 못한다면 빨리 사람을 보내여 그 애 할아버지라도 모셔와야 합니다.》

《그게 좋을상싶소. 어서 위암의 소견대로 합시다. 그런데 우리 억기는 석탑에 대해서 세세히 알고있다오.》

《아, 그렇습니까?》

《위암도 그 13층석탑이 고려 29대임금이였던 충목왕(1345-1348)때 우리 선조들이 세운 탑이라는걸 알고있을거요. 억기는 바로 그때 탑을 세운 행수석공의 후손이라고 하오.》

《아, 그렇댔구만요.》

《사실 억기의 조상은 그때 백성들이 그랬듯이 변변한 성도 없었다고 하오. 억기의 할아버지는 손자가 태여났을 때에도 이 집안이 비록 온전한 성씨도 가지지 못한 집안이기는 하나 세상에 대고 자랑할만 한 조상이 한분 계신다고 했다는거요. 그 조상이 바로 경천사에 13층석탑을 만들어 세웠다고 하면서…》

리상재의 이야기는 멀리 고려 충목왕시절로 거슬러올라갔다.

장지연은 리상재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려사》며 여러 야사집들에서 본 경천사탑과 관련된 옛 기록들을 더듬어보았다.

…

힘을 내세나 쩡쩡
기운을 내세나 똑똑
재주를 내여라 써걱써걱
일손을 다그치세나

경천사원당의 동켠 뜨락에 석탑을 세우는 일을 주관하는 석공행수 록달은 홍겹게 흰바위돌을 깨고 쪼며 다듬는 수하석공들을 흡족한 기분으로 둘러보고있었다.

이 석공행수가 바로 억기의 조상이였다.

록달이 지금 자못 미더운 눈길로 석공들을 둘러보는것은 그들이 자기가 배워준 재주를 다해 바라는대로 일을 다그쳐주기 때문이였다.

하루빨리 세상에 보기 드문 희한한 석탑을 보란듯이 세우려는것이 늙마에 간직한 그의 둘도 없는 소원이였다. 소원도 소원이려니와 이 석탑만 세워지면 어리고 병약한 임금도 몸을 털고 일어나 국사를 돌볼수 있다니 어찌 백성된 도리를 다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에서 록달이 수십명의 제자석공들을 모두 데리고 경천사로 나온지도 어느덧 한해가 가까와온다.

《나무아미타불!》

귀익은 목소리에 록달이 뒤를 돌아보니 늙은 주지가 백팔념주를 쥐고 두손을 맞잡은채 서있었다.

《시주님! 삼사판사어른께서 방금 절에 왕림하셨소이다.》

주지의 그 말에 록달의 얼굴은 금시에 더 밝아졌다.

《아, 그렇소이까!》

삼사판사라면 나라의 돈이며 곡식의 들고나감을 맡아보는 삼사의 장관인 익재 리제현을 말하는 것인즉 그가 또 나왔다는 소리였다.

《대사님! 반가운 기별을 알려주셔서 고맙소이다.》

록달은 부지런히 걸음

발을 다그쳐 여러 불당들과 행랑들을 지나 중문에 이르렀다.

과연 수수한 도포차림의 리제현이 중문곁의 현란한 법당앞에 서있었다.

《판사어른께 소인 문안드리오이다.》

록달의 인사에 리제현도 몹시 반가운듯 기쁜 웃음을 지으며 응수했다.

《그간 고생이 많았겠네. 절문밖에선 농군들이 봄갈이로 바삐 돌아가는데 절문안에선 석공들이 석탑을 빨리 세우느라고 이렇듯 눈코뜰새없이 돌아가고있구만.》

학식이 높기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리제현은 환갑나이를 넘긴 고관이였지만 천한 신분의 석공들 앞에서 굳이 틀을 차리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록달이 그를 더 존경하는지도 몰랐다.

《나무아미타불. 판사어르신께선 별채에 드시여 로독을 푸심이 어떠하시오이까?》

록달을 뒤따라온 늙은 주지가 두손을 합장하고 머리를 숙이며 청하는 소리였다.

《고마우나 내 걱정은 아예 마오. 난 탑이 어찌되였나 보려고 왔으니까.…》

말끝이 흐려지는 리제현의 목소리에 록달은 가슴이 졸아드는것만 같았다.

가뜩이나 허약한 어린 임금이 더 아프기라도 한것이 아닐가. 나이어린 임금이 룡상의 주인으로 올라앉은지도 어느덧 4년이 되여오고있었다.

《행수! 돌이 모자라지는 않겠지?》

《예, 쓰고도 남을것 같소이다.》

《그렇다면 됐네.》

리제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떡이였다.

경천사석탑으로 쓸 돌은 강화도에서 나는 화강석이 아니라 평주(평산)고을에서 나는 흰대리석으로서 평주백성들이 그것을 마련해보내느라 역사를 하였다.

《날은 점점 지나가는데…》

록달은 한탄소리처럼 울리는 리제현의 말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지 모르지 않았다. 아무리 미천한 백성이라고 하여도 개경땅에 태를 묻은 두귀가 활짝 열린 사람인데야 어찌 조정일을 전혀 알지 못하랴.

리제현은 저대로 갑자기 심각해진 석공행수가 무엇을 생각하며 이러는지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지금 조정정사의 대부분을 어린 임금의 어머니인 덕녕공주가 자의대로 처리하고있는것은 시골의 초부들도 아는 비밀아닌 궁궐의 일이였다.

여기 경천사에 석탑을 세우는 일을 둘러싸고 조정에서 론의가 분분했던것도 사실이였다.

지난해 어린 임금의 사부(스승)를 하던 국사(나라에서 제일 높은 중의 벼슬)도 연등회(정월대보름날에 진행하는 불교의식)에서 송악산 서남쪽에 있는 경천사에다 새로 13층석탑을 하나 세운다면 령험한 부처의 덕으로 임금의 건강도 회복할수 있고 국력도 강해질수 있다고 력설하였다.

그러자 찬성사 강윤충과 홍해군 배전 등은 그렇다면 지체말고 석탑을 원나라조정에 청탁하여 돌이며 석공들을 데려오자고 떠들어댔다. 여기에 덕녕공주까지 맞장구를 치였다.

그러나 대다수 대신들이 룡체를 돌보는 일을 남에게 부탁할수 없다고 들고나온데다가 다행스럽게도 임금의 할머니인 홍태후가 여기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여 의논은 후자에게 유리한쪽으로 기울어졌다.

주 소 : 평 양 통 일 신 보 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522 편 집 위 원 회